



신현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

두만강 압록강이 생겨난 이야기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옥황상제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습니다. 방금 한 신하로부터 조선 왕에 대한 보고를 들
었거든요.

“그게 정말이야? 조선 왕이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
았다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내는 제사를 올하는 걸렀다고
합니다.”

신하는 옥황상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건방진 왕이로구나. 이 옥황상제가 우습게 보인
단 말이야? 그래, 무슨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하

느냐?”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관리를 조선 땅으로 보냈습니다. 잠시 뒤면 돌아올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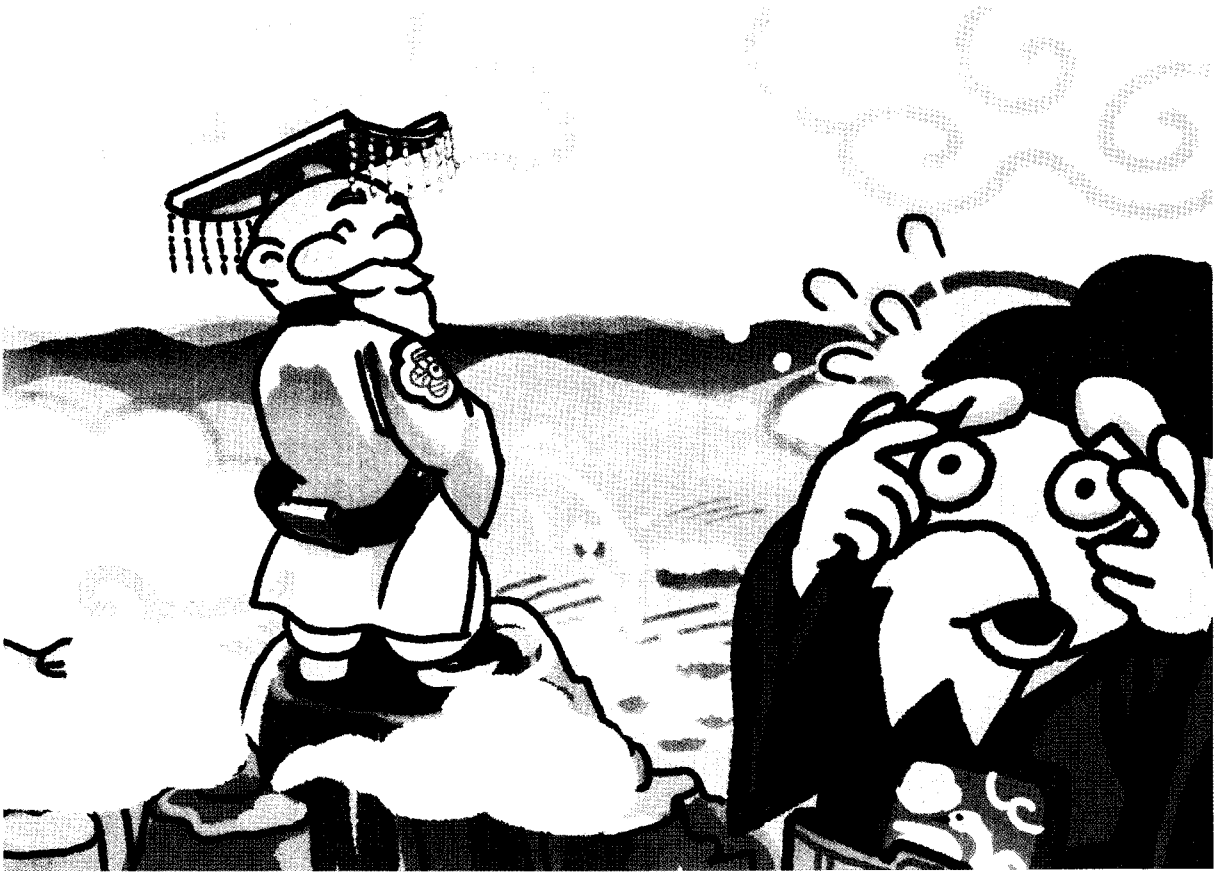
옥황상제는 화가 나서 긴 수염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내게 겁 없이 탐버
들어? 어디 두고 보자.’

옥황상제가 성난 얼굴로 씩씩거리고 있을 때, 조선에 갔던
신하가 돌아왔습니다.

옥황상제는 그 신하에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조선 왕이 왜 내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어서 말해



보아라.”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알아보니, 조선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까, 궁리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황상제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라고 했느냐? 조선 왕이 제사를 지내지 않은 이유를 말하라니까!”

“예,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선 왕은 이처럼 백성만 생각하는 임금인데, 올해 조선 땅에 몹쓸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게 되자, 제사에 쓸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뭐, 뭐라고? 백성들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은 이 옥황상제보다 자기 백성이 더 소중하다 이거로구나. 허허, 그것 참…….”

옥황상제는 화가 풀렸는지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올해 조선 땅에 어찌다 흉년이 들었지?”

“예, 그것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입니다. 가뭄은 농사를 망치게 하거든요. 물이 어찌나 귀한지, 백성들은 마실 물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들 우물을 찾느라 온 땅을 헤매다니더군요.”

“물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지.”

옥황상제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눈을 뜨고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조선 땅이 어디쯤에 있느냐? 조선 땅이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나를 안내하라.”

옥황상제는 신하를 앞세우고 하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하가 멈춰서며 어느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옥황상제님, 바로 저기가 조선 땅입니다.”
 “오, 그래?”
 옥황상제는 조선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가 가장 높이나?”
 “조선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백두산입니다. 옥황상제님,
 저 아래 보이시죠?”
 “그래, 보인다. 꽤나 잘생긴 산이로구나.”
 옥황상제는 백두산을 내려다보다가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라.”
 “예? 눈을 감으라고요?”
 신하는 영문을 몰라 오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명령이다. 어서 눈을 감아라!”
 “아, 예…….”
 신하는 얼른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옥황상제가 무슨 이
 유로 눈을 감으라고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때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신하는 너무나도 궁금해 눈을 뜨고야 말했습니다.
 “앗!”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옥황상제가 백두산을 향해 오줌을
 싸고 있었으니까요.
 이 때 옥황상제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제사를 지내지 않은 조선 왕에게 벌을 주고
 있으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느라 그랬으니, 큰 벌은 내릴 수
 없지 않느냐. 이 오줌으로 앞으로 물 걱정은 하지 않게 될 거
 야. 그러면 내년부터 제사는 꼬박꼬박 지내게 되겠지.”
 바로 그 순간, 조선 땅은 발각 뒤집혔습니다. 밝은 하늘에
 서 물줄기가, 그것도 백두산 꼭대기에만 쏟아지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물 걱정은 덜게 되었다며 모두들 기뻐
 했습니다.
 옥황상제가 오줌을 싸고 나자, 백두산 꼭대기에는 큰 연못
 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입니다.
 그리고 천지에서 넘쳐흘러 동쪽으로 내려간 오줌 줄기는
 ‘두만강’이 되고, 서쪽으로 내려간 오줌 줄기는 ‘압록강’이 되
 었다고 합니다. 🌐